

중학 때 학폭 피해 광주 교사 '학폭 반대' 전도사로 나섰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학폭의 흉포화, 지속성 등을 보여줘 이에 따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실에서 학폭의 잔혹성은 드라마와 같지만, 피해자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복수를 하는 것은 불발이다. 학폭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피해 사실을 평생 숨겨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더 글로리의 주인공 송혜교와 같은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교사가 돼 전국을 돌며 '학교폭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이 모인다.

광주 경신중학교 과학교사 이호동(45)씨는 30여년 전 겪은 학교폭력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드라마 속 '복수극'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 전국을 돌며 '학교폭력 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8년동안 이씨가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학폭은 수십년이 지나음에도 그대로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나마 학교 밖으로 드러나는 학폭 사례는 너무나 잔혹하기 그지 없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어디에 알려야 할지도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폭력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씨의 이야기다.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폭력 사례 건수는 2020년 896건, 2021년 1920건, 2022년 3007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학생 대비 2020년 0.9%, 2021년 1.0%, 2022년 1.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학교폭력예방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학교 측 실수로 가해자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경우부터 오래 전 학교폭력 피해로 10여년째 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는 피해자, 자식이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잇따라 몸져누운 부모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씨는 거리로 나섰다.

광주 경신중 과학교사 이호동씨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혹" 서울·대전 등 전국 돌며 캠페인 전국 동료교사·학부모 등 동참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까지 따 책도 발간...인세는 피해자에 기부



이호동씨가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거리에서 학폭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7-9일 2박 3일에 걸쳐 서울 용산역, 청계천, 코엑스, 이태원 등지를 돌며 학교폭력 근절 시민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나눠주고 현수막을 펼친 채 전단지 4000부를 배부하는 캠페인인데, 아내 박소영(41)씨와 아들 이성광(12)군도 동참해 한 목소리를 냈다.

15일에는 광주시 동구 산수동 일대에서 캠페인을 하고, 수완지구와 용봉동, 계림동 푸른길 등 광주 일대를 돌 계획이다. 이후 대전, 부산, 제주 등을 돌며 전국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이 그의 목표다. 이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가지다.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절대 가만 있지 말고 신고할 것 ▲학교폭력을 당하면 누구든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 ▲친구에게 하는 장난·놀림은 그 자체로 학교폭력이라는 것이다. 이 교사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집 안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고 늘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어른들이 늘 강조하는 불조심, 차조심 등 메시지를 아이들이 몸으로 기억하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꾸준한 교육으로 체득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학생뿐 아니라 부모와 주변인들 모두가 학교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작은 외침이나마 누군가 듣는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한번 더 꼼꼼게 되고, 그 영향력이 지식과 부모, 이웃에게 차츰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캠페인을 시작했다

진심이 통했는지 뜻에 동참하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동료 교사와 교회 집사, 이웃,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등이 "나도 피해자다"는 사실을 밝히며 캠페인에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이씨는 캠페인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학폭 근절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 1월 이씨는 직접 학교폭력 상담을 받고 싶다면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땀다.

이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와 에세이를 담은 책도 쓰고 있다. 원고 작업은 마쳤으며 현재 아내 박씨가 삽화 작업을 하고 있다. 책을 통해 얻은 인세는 전액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또 맘카페 등 인터넷 공간에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파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기부금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씨는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릴 만큼 아픈 그 고통을 모른다"며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한 명의 학교폭력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날까지 캠페인, 출판, 상담, 위로, 기부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4일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도시철도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새어 나온 수돗물이 흘러넘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버려진 광주 수돗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백운광장에서 상수도관 파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손돼 수돗물이 도로로 쏟아졌다.

14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중이던 백운광장(남구청-양림후면시아)에서 상수도관 연결부위가 파손돼 수돗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 등은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굴착 장비가 상수도관 연결 부위를 건드려 180t 이상의 수돗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비상 관로 개방 등의 응급조치를 한 뒤, 파손된 연결부위를 교체해 오후 1시 30분께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총 13건의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행암동 덕남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물을 보내는 송수관로 밸브가 고장 나 수돗물 5만 7000여이 유출됐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특전사동지회와 5·18묘지 합동참배 반대"

5·18유족회 불참 선언...부상자회 200여명도 반대 목소리

'5·18민주화운동유족회'가 오는 19일 예정된 오월 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특전사참배에 반대를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유족회는 14일 특전사동지회와 함께하는 '대국민 공동선언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불참 결정문'을 내놨다.

유족회는 회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 이사의 80% 이상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을 통해 유족회는 "행사의 기대와 취지와는 다르게 특전사동지회 측은 양심선언이나 공식 사과 등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실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유족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특히 특전사동지회가 행사에서 군가 '검은 베레모'를 제창할 계획이라는 말에 당초 행사에 찬성했던 유족들도 등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검은 베레모'는 3공수여단 11대대가 1980년 5월 27일 시민군을 유혈진압한 뒤 도청 분수대 앞에서 승전가 삼아 부른 노래다. 특전사동지회는 19일 합동참배에 앞서 열리는 공동선언식 행사에서 '검은 베레모'를 제창할 예정이다.

오월 단체와 관계자 등 곳곳에서도 합동 참배 행사 반대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5·18부상자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대국민선언 지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규명조사위 조사 기간 중에 합동 참배가 급하게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들과 지역사회의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 전역에 공동선언 반대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걸고, 행사 당일인 19일 민주묘지 등지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특전사동지회가 먼저 진술한 자기 고백과 사과, 반성, 진상규명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용서, 화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산구 금고 선정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2명 2심서 감형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광산구 6급 공무원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광산구 4급 공

무원 B(64)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벌금 1500만원 혐의 선고를 유예받은 C(67) 전 광산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뇌물공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은행 관계자 3명 중 1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2명에 대해서는 원

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고 평가심의위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찰 절차와 금고 지정의 공공성·공정성을 훼손한 점,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전 공직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